

정상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1년간 격으로 반복 검사해도 무방하다고 하나 우리실정으로는 6개월마다 검사를 권고하여도 번잡한 주부생활과 실지 영기암 또는 1기암에는 자각증세란 없는 까닭에 몇년만에 다시오는 사례가 비일비재인 현실로 보아 6개월마다 반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 조직검사 —

세포검사는 진찰로는 별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을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지만 만일 자궁

에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의 조직을 채취해서 조직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역시 간단하고 별로 고통이 없는 방법이므로 주저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요컨대 부인암은 다른 암검사와는 달리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초기에 진단만 되면 치유 100%의 효과가 보장되는 까닭에 30대 후반의 부인은 반드시 정기세포검사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필자=고려의대 산부인과 교수·의박>

肝炎의 原因과 發見

金 官 曄



간염(肝炎)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지금까지는 A형, B형 그리고 非A非B형(A도 아니고 B도 아니라는 뜻)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들 간염은 전염경로가 서로 다르고 병의 경과나 예후(予後)는 다르지만 증세는 비슷하고 치료도 별로 큰 차이는 없다. A형은 쉽게 낫고 非A非B형도 만성형으로 옮겨가는율이 적어 사실상 큰 걱정은 없으나 B형은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만성형으로 옮겨가서 몇년을 앓게 되거나 혹은 간경화증이나 간암으로

이행하기도 하여 아깝게 목숨을 잃게 되는수도 있어 사실상 골치거리 병으로 대두되고 있다.

원 인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비로소 발병된다.

A형의 전파는 바이러스가 음식물과 함께 입으로 들어가서 발병한다. A형 바이러스는 환자의 대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한 가족 또는 한 마을, 한 집단에서 발병한다. 위생상태가 좋지않은 저소득층에서 보다 많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위생시설이 미비하고 위생관념이 낮기 때문인지 중학교 입학하기 이전에 거의 전국민이 알게 모르게 감염이 되어있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에서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B형은 수혈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전염된다고 알려져왔으나 지금은 수혈로서 뿐만 아니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피로 만든 모든 제제 즉 푸라즈마, 농축 적혈구, 심지어는 알부민 까지도 전염원이 될수있고 바이러스가 묻은 의료기구 (B형 환자에게 썼던 의료기구가 소독이 잘 못 되었을 때) 주사기, 주사바늘, 이발소 면도기, 침, 문신(文身) 바늘 등등에 의해서도 전염된다. 환자의 모든 体液에서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키스나 성교에 의해서도 전염이 된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비단 환자에서 뿐만 아니라 아무

런 증상도 없는 외견상 건강한 사람에도 바이러스가 숨어 있기 때문에 (보균자라고 한다.) 이러한 보균자에게 사용한 모든 물체가 매개가 되어 전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염경로를 알고 있지만 제대로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날로 간염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非A非B형 간염은 아직 바이러스를 증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명칭을 붙이고 있지만 이것은 수혈에 의해서 전염된다는 것은 확실해졌다. 모든 방법을 써서 공혈자에게서 간염의 전염성 유무를 검사해서 가려내고 있지만 이 형에서는 미리 알아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수혈은 삼가는 것이 지금의 추세이다.

모든 병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간염에서도 전염경로를 대강 알고 있기 때문에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즉 간염환자와는 접촉을 피해야하며 환자가 사용했던 물건은 철저히 소독해야하고 음식은 청결하고 잘 익히고 끓여 먹어야 하며 수혈은 될수록 피해야 할 것이다.

감염의 발견

최종적인 진단은 검사다. 간염의 증세가 보이는 사람에게서 간염의 의심이 되면 혈액검사로써 간기능

과 간염 바이러스 標識子를 알아내고 필요한 경우 간조직검사를 하기도 한다. 또한 간염에 잘 걸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의사, 치과의사, 간호원, 병원검사실 기사), 잘 걸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 즉 인공신장 치료 받은 사람, 대수술로 수혈을 많이 받은 사람, 마약중독자, 정신박약자 등에게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 간염을 미리 가려내야 한다.

증세 : 일정한 증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여러가지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나른하다, 쉬 피로하다, 메스껍다, 상복부가 뚝뚝하다, 식욕상실, 감기몸살 증세, 성욕감퇴, 담배맛이 없다, 소화가 안 된다, 배가 아프다 등등 여러가지 증세에다가 때로는 황달 (눈과 피부가 노래지고 소변색이 진하다) 이 나타나기도 하고 진찰해보면 간이 부어있다.

이러한 증세만 가지고 간염을 확진 지을수는 없으나 대강 진단은 되고 최종적으로 혈청검사로써 진단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간기능 검사 만으로는 “간염” 의 진단은 되지만 바이러스성 간염인지 또는 약물이나 알콜에 의한 간염인지 또는 다른 병에 의해 속발된 간염인지를 구별하기가 힘든때가 있다. 또 한번의 검사만으로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가려내지 못할때도 있다. 따

라서 병증세와 검사결과를 종합해서 의사가 판단하게 되는데 그래도 잘 판단이 안될때는 간조직검사를 해야한다. 간조직검사라는 것은 주사바늘 같은 것으로 간조직을 빨아내는 것으로 사실상 큰 위험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소문이 나있어 환자 가족들이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를 가끔 당하게 된다. 간조직검사는 현재의 병의 상태, 앞으로의 경과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일단 간염으로 진단되면 이것이 무슨형의 간염인지, 나아져 가는지, 만성으로 이행해 가는지, 전염성이 그대로 있는지, 면역이 되었는지 등을 알기위해 계속 추적검사를 해야한다. 간기능검사상 간염이 나아졌다고 해서 완치됐다고 할수 없다. 얼마후에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만성화 되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간염은 오랫동안의 검사로 경과를 추적해 나가야하고 완치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쉽게 치료되는 사람은 아무런지도 않지만 오래 끄는 사람에게는 골치아프고 지루한 병인 것이다.

간염의 標識子라는것은 바이러스성 간염중에서 B형 간염에서만 자세히 알려져 있고 非A非B형은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중이고 A형에 대해서는 병이 지나간후의 표식자

만을 알고있다.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의 항원 항체를 사람의 피에서 검출해냄으로써 어느 형의 간염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더 나가서는 B형의 경우 현재 전염성이 있는지, 만성으로 되었는지, 면역이 되어 완전히 치유되고 다시는 같은 형의 간염에 안 걸리게 되는지를 알게되는 검사인 것이다.

결론

1. 바이러스성 간염은 A, B, 非A非B형의 세가지가 있다.
2. A형은 음식을 통해서 입으로 전염되지만 쉽게 낫고 거의 만성화하지 않는다.
3. B형은 환자나 보균자에게서 바이러스가 오염된 모든 물체를 통해서 전염된다. 따라서 환자와의 접촉은 삼가고 전파경로를 미리 차단하는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기구는 병

원에서 알아서 처리하지만 오염이 되었을지 모르는 이발소 면도기, 대중이 함께쓰는 물컵, 침 맞기 등 피부부를 뚫고 들어가는 물체는 될수록 사용 안하는게 좋다.

4. 非A非B형은 수혈에 의해서만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5. 소화불량, 식욕상실, 전신피로감, 구역질, 황달 등의 증세는 간염에서 많이 보는 증세임으로 간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간염은 증세, 혈청 간기능검사로 진단이 가능하다.
7. 간염환자와 자주 접촉하거나 환자의 물건, 배설물, 검사물(혈액, 소변, 대변 등)을 다루는 사람은 수시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필자=仁濟醫大부속 서울白병원
내과교수·의박〉

職場人(集團)의 身体檢査는 왜 必要한가?



— 勤勞者(職場人)의 産業保健管理의 重要性 —

柳 東 俊

産業場 保健管理의 目的
산업보건관리의 목표는 근로자